

농진청, 가공식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올해의 우수 농업경영체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1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9 가공식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농업경영체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특색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증대를 이루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융복합산업 경

공동경영체 부문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

개별경영체 부문 '농업회사법인 더고운' 최우수상

영체로 인증받기 위해 준비 중인 농업경영체 가운데 농촌진흥기관의 사업을 지원받은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경영체와 개별경영체 8곳이 참가했다.

이날 각 경영체들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 추진 중인 상품개발, 농

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공동경영체 부문 최우수상은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경기 안성)'이 수상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의 귀농창업교육 수료자 5명이 결성한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

조합법인'은 안성의 특산작목인 배를 이용해 말말이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까지 확대하고 있다.

개별경영체 부문 최우수상은 '농업회사법인(유)더고운(전북 익산)'이 수상했다. 사계절 내내 군고구마를 즐길 수 있도록 간편식 형태의 제품을 개발했으며, 상품제조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최근 소비경향이 잘 맞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이유식과 고령친화식으로 손색이 없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농업경영체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지도(컨설팅)를 지원하고, 판촉(마케팅)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이명숙 과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한 경영체가 생산한 상품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지역농산물을 가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이 많았던 만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9 가공식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중국 시장개척을 위해 북경과 강소성(남경)에서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中 내륙시장 개척 박차

도·경진원, 강소성 등에 현지 수출상담회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중국 시장개척을 위해 북경과 강소성(남경)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북도와 강소성(중국) 두 지역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고 두 도시 간에 통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강소성 실무청 담당자(대외협력처 순결 부처장)와의 미팅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과 전북 수출 제품의 홍보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화장품, 식품, 일반소비재 분야의 도내 10개사가 참여해, 상담회를 통해 총 104건 372만불의 수출 상담과 6건 27만불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한편, 시장개척단은 북경전축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규모 보세창고 등을 견학하고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전북도 제품의 보세구역 내 보관·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 수출인·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이 보세구역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에게 수출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소성 내 온라인플랫폼 기업인 EZISLAND(박자도그룹, 대표 장흔 등)를 방문하여, 중국 내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중국 시장 공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와 경진원이 추진 중인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회'는 올해 총 3회를 진행 중이며, 전북도 중소기업이 해외 유통바이어를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회를 총 2회(동남아, 남미 지역) 운영하여, 도내기업 15개 업체가 213건의 상담(상담액 1902만불)을 진행하였고, 2건의 현장계약(수출액 6만불)을 성사시킨바 있다. /김윤상 기자

자율주행 미래 인식 기술 발판 마련... LX, 판교 모터쇼 참여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미래 자율주행 인식기술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일 개최된 '제3회 판교 자율주행모터쇼'에 참여해 LX 자율주행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 제작에 투입되는 공간정보 구축 기술에 대해 안내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LX

의 역할과 비전을 밝혔다.

국내·외 산·학·연 자율주행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자율주행관련 기술을 나누는 경진대회로,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와 라이다 등의 센서용 합기술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인식 정확도 여부를 겨루는 대회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연구발표회를 통해 판교제도시티와 LX의 그간 주요 자율

주행 추진 현황과 자율주행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자율주행 사업의 연구와 미래자율주행시대 LX의 역할과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권 공간정보연구원장은 "이번 행사가 향후 자율주행의 인식 기술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의 자율주행 연구와 공간정보 사업의 융합을 통한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도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와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연구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후 판교제도시티만의 '통합고정밀디지털지도'를 구축해 관계시스템과 제로셔틀, 공간정보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GIS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6일 '창립 50주년 기념' 환전·송금 고객 대상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립 50주년 기념 환전/송금 이벤트를 오는 11월 6일부터 진행한다.

이달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기간 동안 전북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뉴스마트뱅킹을 통해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또는 송금을 거

래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한다. 일별로 환전 고객과 송금 고객을 각각 1명씩 추첨하여 총 50명에게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하며, 응모조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 결과는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뉴스마트뱅킹에 게시되며 경품은 당첨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50년 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며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닭가슴살의 고당백 식물성 단백질 배합

하림, 'P+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 7일 출시

하림은 오는 7일 하림만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P+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를 출시한다.

'P+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는 닭가슴살의 고당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과학적으로 배합했다. 국내산 100% 닭가슴살을 바탕으로 닭가슴살 분말, 농축유청단백, 분리대두단백 등 3종의 단백질을 이용해 만들었다.

또 뷰티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피쉬콜라겐 1670mg, 히알루론산을 함유했으며 장건강밸런스를 위해 식이섬유 3000mg, 7종의 혼합유산균도 담았다. 이외에도 8종 비타민, 3종 미네랄, 9종 아미노산 등이 들어 있다.

이 제품은 고소한 맛을 지닌 스틱 타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30%가 충족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하루 한 개 식사대용이 가능하다.

오는 7일 NS홈쇼핑에서 첫 런칭한다. /익산=장인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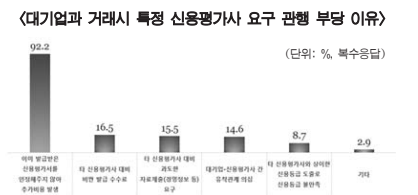


대기업 거래 증기 절반 "특정 신평사 이용 요구 부담"

"기준에 보유한 신평사가 아니라도 거래 대기업이 특정 신평사 이용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막상 받아보면 기존 신평사와 내 용이 동일함에도 추가비용만 날리는 셈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푸념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평평가등급확인서(이하 신평평가서) 발급 경험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거래 시 신평평가서 요구관련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41.9%)은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평사 이용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신평평가서 이용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3.6%)은 해당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이 미 발급받은 신평평가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추가비용 발생(92.2%)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꼽았다. 이어 ▲타 신평평가사 대비 비싼 발급 수수료(16.5%) ▲타 신평평가사 대비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15.5%) 순으로 응답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들의 연 평균 신평평가서 발급 횟수는 1.9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은 2.0건 경향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의 1.2건보다 평균 0.8건 높게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신평평가서 발급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신평평가사의 신평평가서를 요구해서'(61.8%)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은 '신평평가서 발급 비용도 달라서'(62.5%)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신평평가서 발급 비용으로 56.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신평평가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행정 등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과반(54.0%)을 넘었다. 특히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된다'는 응답이 55.9%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응답 33.3%보다 높았다. /김윤상 기자

NH오픈뱅킹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농협은행의 디지털채널에서 타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조회나 이체 등이 가능한 NH오픈뱅킹의 출시를 기념해 총 4,326명이 넘는 고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5가지 이벤트를 지난 달 30일부터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또 같이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올원뱅크의 오픈뱅킹에서 타행계좌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LG 그램 노트북, 맥북에어, 기프트카드 등 총 2,00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Y.O.U 이벤트'는 지난달 25일 출시한 NH1934패키지상품(통장, 저금, 대출)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쿠키를 응모하면 총 803명을 추첨해 농촌사랑상품권 100만원,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카드 3만원 등을 제공한다.

'금일봉 이벤트'는 NH올원5늘도적금, 올원미이너스대출, 올원직장인대출에 가입하고 응모하면 갤럭시노트,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총 1,019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고, '직장인 급여이체 두툼 이벤트'는 농협은행 계좌로 전달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처음으로 수령하고 쿠키에 응모하면 현금 300만원 등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첫 거래고객 NH WELCOME 이벤트'는 농협은행 고객으로 신규등록하면 NH주거대출내적금 또는 NH1934월복리적금에 비하면 가입시 1% 이벤트 추가금리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연금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지원대상

- 연령 :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 5년 이상 (전제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단,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80% 인정)
-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 가능 (단,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승계 선택을 한 경우에만 한함.)

연금 수령방식

- 중신형 (정액형, 전후후보형, 일시인출형)
- 기간형 (정액형(5년, 10년, 15년), 경영이양형(5년, 10년, 15년))

농지연금 장점

- 평생보장 :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합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만 감면됩니다.

연금 종류

경제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형	기간형
장액형 전후후보형	일시인출형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농지가격

농지가격	장액형 전후후보형	일시인출형	5년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5천만원	225	263/264	161/139(연)	778	411	298	892	477
1억원	450	527/369	321/208(연)	1,555	822	596	1,784	955
2억원	900	1,054/738	642/320(연)	3,000	1,644	1,193	3,000	1,910
3억원	1,351	1,580/1,106	963/379(연)	3,000	2,466	1,789	3,000	2,844

*1) 공표는 일시인출가능액
*2) 세전 3000원까지 지급됩니다.
*3) 만 74세,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함. (단, 기간형 약액 및 경우 74세 기준)

가입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 연금 지급

※ 주 소 지 관 할 농 어 존 공 사 지 사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문의전화 : 063-650-7032

닭가슴살의 고당백 식물성 단백질 배합

하림, 'P+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 7일 출시

하림은 오는 7일 하림만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P+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를 출시한다.

'P+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는 닭가슴살의 고당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과학적으로 배합했다. 국내산 100% 닭가슴살을 바탕으로 닭가슴살 분말, 농축유청단백, 분리대두단백 등 3종의 단백질을 이용해 만들었다.

또 뷰티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피쉬콜라겐 1670mg, 히알루론산을 함유했으며 장건강밸런스를 위해 식이섬유 3000mg, 7종의 혼합유산균도 담았다. 이외에도 8종 비타민, 3종 미네랄, 9종 아미노산 등이 들어 있다.

이 제품은 고소한 맛을 지닌 스틱 타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30%가 충족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하루 한 개 식사대용이 가능하다.

오는 7일 NS홈쇼핑에서 첫 런칭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